

당규 어기고 후보 지지...민주 당권 경쟁 과열

당 선관위, 이해찬·김진표 후보 지지 현역의원 4명에 경고 송영길 "당 분열 우려 이의 제기"...일부선 "선관위 과도 해석"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전이 과열돼 가는 양상이다. 일부 의원들이 당규를 어기고 특정후보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당 선관위가 나서 해당 의원들에게 경고까지 하고 나섰다.

민주당 선관위(위원장 노웅래 의원)는 최근 회의를 열어 특정 당대표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현역의원 4명에 대해 '구두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경기지역 A국회의원은 지난 7월26일 특정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했고 ▲서울지역 B국회의원은 8월9일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후보의 특정 공약을 환영한다고 언급하며 사실상의 지지를 표명했으며 ▲경기지역 C국회의원은 8월12일 사실상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기자 인터뷰를 통해 이를 인정했으며 ▲대전 지역 D국회의원은 8월5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상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이 의원들의 행위가 당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당규 33조는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는 예비경선에서 떨어진 직후 이해찬 후보를 지지 선언한 이종걸 의원, B는 "이

해찬 후보의 민생경제 연석회의의 구상을 환영한다"고 밝힌 우원식 의원, C는 페이스북에 "제갈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실현해 국정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당대표가 선출돼야 한다"며 김진표 후보 지지 뜻을 밝힌 전혜철 의원, D는 "깔깔한 리더십"을 언급하며 이해찬 후보 지지를 선언한 박범계 의원이다.

이처럼 당 선관위가 의원들의 지지 선언에 제동을 걸면서 더 이상의 공개적인 세규합은 어렵게 됐다.

경선전이 과열되고 당 선관위까지 나서게 되자 후보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송영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특정 후보에 대한 일부 의원의 공개적인 지지 표명으로 초래되는 당내 분열 우려에 심각성을 느끼고 당 중앙위에 이의 제기 등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그룹에서 이를 송후

보 측이 사법기관에 고발이라도 한 듯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당내 분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당규 규정이 공개적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인 지지 선언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과도한 해석으로 불만을 내놓고 있다. 또 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 선관위는 앞으로, 후보 간의 불필요한 시비를 최소화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이끌어 내도록 경선 분위기를 이끌기로 했다.

노웅래 선관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막바지 과열 양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후보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최고위원 경선 호남 유일 후보 박광은 1위 할까

더불어민주당 8·25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서 어느 후보가 수위를 차지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키로 하면서 경선 1위 최고위원이 당대표와 원내대표에 이어 당내 권력 서열 3위에 오르게 된다.

최고위원 경선에는 김해영·박주만·설훈·박광은(사진)·황명선·박정·남인순·유승희 의원(기호 순) 등이 참여해 경쟁하고 있다. 이중 5명(여성 1명 반드시 포함)이 득표 순으로 최고위원이 된다.

14일 당 안팎에서는 이들 8명의 의원 중 박광은 의원을 유력한 1위 후보로 거론하고 있다. 여기에 설훈·박주만 의원 등이 1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 관계자는 "변수가 많지만 그동안 살아온 이력이나 정치경력, 조직 등을 종합할 때 박광은 의원이 1위를 차지할 것이라 전망이 많이 나온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박 의원은 해남 태생으로 8명 중 유일한 호남 출신 후보다. 당내에 호남의 목소리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박 의원이 경선 1위로 최고위원이 될 경우 호남 목소리 대변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전망이다. 이 때문에 호남



에서 박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MBC 앵커 출신으로 대중적 지명도가 높고 당 경기가 당위 원장을 해서 조직적으로도 우세한 것으로 평가된다.

4선인 설훈 의원은 민평연 조직을, 비록 초선이지만 박주만 의원은 SNS상에서 유명도를 바탕으로 각각 1위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수는 경선 흥행 실패와 1인2표제다.

우선 최고위원 경선전에 대해 당원의 관심이 떨어지면 조직력이 우수하거나 지명도가 높은 후보가 수위를 차지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있다. 후보 간 인물 비교를 할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은 탓이다.

당 관계자는 "당 경선에서 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호남 출신 후보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며 "결국 호남의 권리당원 투표율이 최고위원 경선의 승부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특활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이동 정무위 간사, 이찬열 교육위원장, 김관영 원내대표, 이해재 정보위원장, 하태경 국방위 간사

국회 특활비 '반쪽 폐지' 논란 확산

바른미래·정의당 "의장단·상임위 특활비도 없애야"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가운데 교섭단체 명목의 특활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으나 '반쪽 폐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가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절반 삭감해 양성화하는 방향으로 특활비 개편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활비 전면 폐지를 주장한 소수 야당들이 즉각 반발하면서 논란은 확산되

는 양상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내세운 바른미래당은 '특활비 전면 폐지'를 다시 한 번 부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섭단체,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을 구분해서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축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활비 폐지를 제일 먼저 주장한 정의당

도 '썬 폐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인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활비가 비판받는 것은 세금이 사용처를 모르는 썬처럼 집행됐기 때문"이라며 "의장단, 상임위의 특활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도 특활비 양성화에 부정적 입장이다. 이웅주 원내대변인은 "특활비 제도 개편은 기관장 중심의 임무추진비 확대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의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대 양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국회개편 내용을 개선안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내교섭단체로서(교섭단체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고, 국회에서 의장님이(개선안을) 발표한다니까 한번 보자"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한국당은 특활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니 국회의장께서 국회 특활비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16일 특활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하고 세부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개선안이 특활비 폐지에 방점이 찍히지 않을 경우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송갑석 1호 법안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 7법' 발의

지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사진)이 14일 제1호 법안으로 일명 '한반도 평화시대 남북 7법'을 대표발의했다.

7대 법안 중 첫 번째 법안인 '남북협력 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관광·보건·의료·환경·자연재해 분야를 협력 사업으로 추가함으로써 기금의 확대 사용을 가능케 했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에 사용 가능한 협력 분야는 문화·학술·체육 분야에 한정돼 있었다.

또 교역 중단으로 민간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이 정치



적 상황에 영향 받지 않도록 정경브리 원칙을 명문화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 번째 법안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그 동안 교류가 엄격히 제한돼 왔던 이산가족들이, 이산가족면 회소를 통해 전화나 이메일·화상 상봉의 방법으로 상시적 만남이 가능토록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리벤지 포르노' 성폭력 범죄 최대 징역 3년 법안 발의

평화당 김경진 의원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사귀던 당시 촬영한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을 이별한 뒤에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구갑·사진)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



한 연인에게 공유했던 촬영물이 이별 후 전(前) 남자친구(또는 여자친구)가 전 여자친구(또는 남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 그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6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자 고수익을 보.

무료 공개 강의 일시
조선대 : 9월 6일(목) / 주간 3시, 야간 7시

**2018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8월 1일 ~ 2018년 8월 31일
- 교육기간 : 2018년 9월 6일 ~ 2018년 12월 13일
매주 목요일 주간 3:00~5:00 / 야간 7:00~9:00
- 수강료 : 22만원(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문의 : 062)230-7700~2
- 상담지도교수 : 연락처 010-9416-1200

2018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7기)	광주교육대학교(18기)
개강일시	·목요일 오전반 : 2018. 9. 6.(목) 09: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 2018. 9. 8.(토) 09:10 (특급반)	·금요일 오전반 : 2018. 9. 7.(금) 09: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 2018. 9. 8.(토) 14:10 (중급반)
모집기간	2018. 8. 1(수)~9. 8.(토)	2018. 8. 1(수)~9. 8.(토)
수업기간	2018. 9. 6.(목)~2019. 2. 9.(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8. 9. 7.(금)~2019. 2. 8.(금)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오전반 09:10~13:00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 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 (병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펜션·가든 부지 매매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대지 및 전답 4,000㎡(전평 정남향)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장성 편백숲 5분거리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펜션·전원주택지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900만원
- 전북 순창군 북흥면 지선리 대지 433㎡ 3천만원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택지조성된 곳 660㎡ 9천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광산구 송산동 땅 1054㎡ 집 100㎡ 전원생활적합 3억2천
- 아파트 서구 농성동 제일파크 14층 105㎡ 리모델링완료 1억7200
- 월산동 리모델링완료 땅 144㎡ 2중주택 118㎡ 1억9천만원 1층민대가능

투자·매도·교환

- 광산구 삼기동 대로변접 계획관리지역 3640㎡ 6억9천
- 전북 신대인 상업지 1213㎡ 은행3억6천 김정6억7천 교환4억4천
- 영암 심호읍 중공업지 6019㎡ 은행 2억3천 매도 4억3천
- 나주 동강면 옥정리 영산강부근 전 3154㎡ 전원생활용 5300만원
- 월산동 양면도로접 2중 주거지 873㎡ 은행4억 매도 11억5천
- 금남로 57억 대로접 상업지 364㎡ 16억
- 쌍촌동 소방도 땅 118㎡ 2중 상가주택적합 1억3천
- 영광 흥농읍 주거지역 5223㎡ 공사가 6700 매도 8700
- 북구 망월동 주거지역 1650㎡ 전원생활 등 적합 4억5천
- 함평역 건너 대로접 2중주거지 3192㎡ 다양이용도 2억6천

상가건물

- 신안군 신의면 계획관리지역 4759㎡ 가든·펜션포함 은행1억 투자 전망좋은 교환가능 3억3천
- 동구 수기동 소방도 건너 4중건물 땅380㎡ 건물990㎡ 은행6억 매도 12억8천
- 장성 삼기면 사창리 중심지 땅 192㎡ 건물 140㎡ 구매 2억
- 산수오거리 부근 땅 494㎡ 건평 1996㎡ 병의원적합 20억
- 금남로57가 소방도 땅 213㎡ 건평 599㎡ 은행 3억 매도 6억
- 양림동 땅 274㎡ 건물 751㎡ 요양병원할 건물과 교환가 16억
- 충장로5가 땅 109㎡ 건물 378㎡ 800에 월 115 임대중 3억5천
- 부안군 반선면 도청리 땅 792㎡ 편성 건평 867㎡ 은행 4억7천 매도 8억2천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증축해서 요양병원적합 65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